



1



2



3



4

10



5



6

EASY TRIPS



7

지금 바로 떠나세요!

베네치아의 운하를 돌며 철새를 관찰하고, 파주출판도시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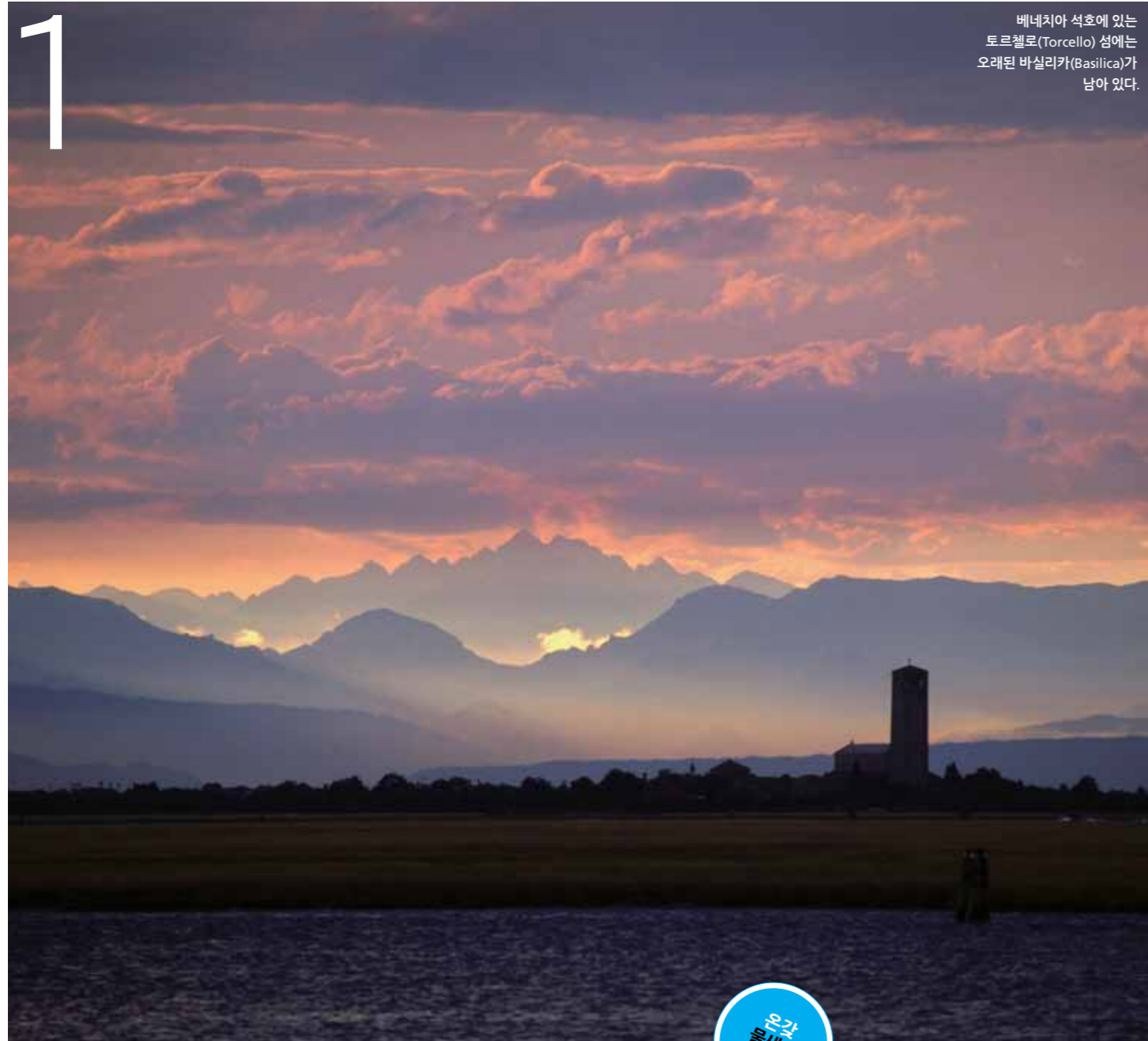
9



10

EDITED BY SIM JI-AH

1



베네치아 석호에 있는 토르첼로(Torcello) 섬에는 오래된 바실리카(Basilica)가 남아 있다.

온갖 물새가 날아든다

Venezia, Italia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서 즐기는 뱃놀이와 새타령

왜 지금 가야 할까?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는 베네치아 운하는 관광객으로 뻘뻘한 산마르코 광장(San Marco Piazza)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는 반가운 휴식처다. 운하는 섬 이곳저곳에 흩어진 수도원과 어촌, 물 위의 작은 가옥을 지나쳐 흐른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물새의 서식지기도 한데, 이를 구경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9월부터다. 바닥이 납적한 베네치아의 전통 배 브라고조(bragozzo)를 빌려 타고 갈대 숲에 숨은 붉은밭도요새, 제비갈매기 등을 관찰해보자. 그다음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려 토르첼로(Torcello)

섬으로 향한다. 섬의 종탑에선 시원한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한 후, 수백 년 동안 베네치아를 지켜온 남쪽의 해안 요새를 찾아가보자. 배에서 내린 뒤에는 유명 레스토랑 오스타리아 다이 제메이(Ostria Dai Zemei)에서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거위 가슴살과 송로버섯 오일을 곁들인 정찬을 추천한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밀라노 말펜사국제공항까지 항공편을 운항한다(150만 원부터, kr.koreanair.com).

밀라노에서 베네치아까지는 열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다(38유로부터, raileurope.co.kr).

★ 브라고조를 타고 호수에 숨은 야생 동식물을 찾아보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베네치아 건축물을 감상하자. 그리고 배를 묶어놓고 생선 스투로 점심을 해결한다. 브라고조 트립(9~12인) 380유로부터(주중), 420유로(주말), veniceboat.org

★ 산폴로(San Polo) 지구의 인기 레스토랑 오스타리아 다이 제메이에 가보자. 음식으로 가득한 진열장 앞에서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도 좋다. 2.5유로부터, ostriadaizemei.it

PHOTOGRAPH: 4CORNERS IMAGES



2

PHOTOGRAPH: GNTO

München, Germany 독일 뮌헨 맥주의 늪에 빠지는 날

왜 지금 가야 할까?
“프로스트(Frost)!” 여기 저기 우렁찬 외침이 들려온다. 하얀 거품이 밀려 올라오는 차가운 잔을 부딪치면서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기분 좋은 축배를 든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축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일 것이다. 1810년 바이에른공국의 루트비히 1세가 열기 시작한 음악 축제를 훗날 독일의 메이저 맥주 회사가 후원하면서 지금의 맥주 축제로 바뀐다. 16일간 열리는 축제 기간 내내 시의 광장에는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이 선다. 올해는 가족 방문객을 위해 축제의 역사나 과학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공포 체험이 가능한 7개의 방, 고전 뮤직 박스인 디캐프 오케스트리온(DECAP Orchestrion)도 선보인다니 기대해도 좋다. 또 올해부터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유리병 사용은 금지라는 사실도 알아둘 것.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루프트한자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뮌헨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과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경유편을 운항한다. 167만7,200원부터, lufthansa.com

★ 2012 옥토버페스트는 179회를 맞으며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스마트한 여행자라면 앱스토어에서 옥토버페스트 앱을 다운받을 것. 가장 최신 축제 정보를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oktoberfest.de

★ 소피텔 뮌히 바이어포스트(Sofitel Munich Bayerpost)는 고풍스럽고 웅장한 외관과 달리 모던한 디자인으로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호텔이다. 216유로부터, sofitel.com/Munich

Paju, Gyeonggi-do 경기도 파주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왜 지금 가야 할까?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 파주출판도시. 분위기가 한적한 데다가 수려한 모양새를 지닌 건축물이 많아 눈요기하며 돌아보기 좋다. 지난해 첫선을 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책 축제 ‘파주북소리’가 올해 훌쩍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으로 제2회를 맞는다. 올해엔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출판업계가 대거 참여해 보다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난다. 옛 선조가 일상에 사용했던 버전보와 부적, 분판 등 한글을 새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한글 나들이 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잡지를 공개하는 ‘추억의 그 잡지’ 등 흥미로운 전시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세계적인 석학인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지식난장’. 출판도시에 자리한 각

출판사의 사옥에서 저자와의 대화, 창작 워크숍, 시 낭송 등이 열려 도시 일대는 하나의 지식 토론장으로 탈바꿈한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내려 2200번 버스를 타면 파주출판도시까지 20~30분 걸린다.
★ 파주북소리 2012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10개국 100여 개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pajubooksor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은 출판도시 내에 자리한 호텔로, 모던한 외관 덕에 수많은 CF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객실엔 천연 목재 가구와 순면 침구를 갖췄으며 TV 대신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진정한 책 호텔이다. 12만 원부터, jijihyang.org



현대적 건축물이 많아 산책하듯 돌아보려는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다.



PHOTOGRAPH: PAJUBOOKSORI 2012



신발을 신지 않고도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보여주는 마사이족

Kenya, Africa 아프리카 케냐 시작도 끝도 어메이징

왜 지금 가야 할까?

많은 사람이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 종목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끝없는 달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경기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맛보는 쾌감이라는 강력한 동족성을 지녔다. 때문에 전 세계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는 끊임없이 새로운 코스에 도전한다. 여기에 아주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다. 마사이 족과 함께 케냐의 평원을 달리는 일,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지난해 시작한 어메이징 마사이 울트라 마라톤(Amazing Maasai Ultra Marathon)에 건넌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으로 올해도 경기는 계속된다. 경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단순히 마라톤만 즐기는 것이 아니다. 7박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게임 드라이브, 워킹 사파리, 마사이 빌리지 투어와 공연 감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의 수익금으로 어메이징 마사이 걸스 프로젝트(Amazing Maasai Girls Project)라는 기금을 조성해 마사이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 대항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케냐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과 타이를 경유하는 케냐항공 공동 운항편을 운항한다. 170만 원부터, kr.koreanair.com
- ★ 어메이징 마사이 울트라 마라톤은 9월 29일에 열리며, 참가자는 21킬로미터, 42킬로미터 또는 75킬로미터 중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다. amazingmaasaiultra.org
- ★ 페어뷰 호텔(Fairview Hotel)은 미국적인 건물과 널따란 앞뜰이 아름다운 호텔이다. 특급 호텔의 절반 가격에 시설과 서비스는 더욱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만7,300케냐실링부터, fairviewkenya.com

4

Los Angeles, U.S.A 미국 로스앤젤레스

니들이 바닷가재 맛을 알아?

왜 지금 가야 할까?

수준 높은 아트 페스티벌, 광란의 뮤직 페스티벌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건 바로 푸드 페스티벌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그 주인공이 바닷가재라면, 당장 짐을 싸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항의 산페드로(San Pedro) 만은 20세기 초에는 아시아에서 오는 수입품과 목재, 연안어업을 위한 어선으로 아주 붐비는 항구였다. 지금은 많이 고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항이며 여행객을 실은 크루즈가 정박하는 활기찬 항구다. 2009년 가장 많은 시푸드 공급하는 야외 축제로 기네스에 오른 바 있는 축제에 참여하면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바닷가재 식사를 즐기는 것은 물론, 수많은 뮤지션의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따라온다. 3~4파운드나 되는 몬스터 바닷가재를 먹어치울 준비 됐는가?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 아시아나항공(145만 원부터, flyasia.com)과 유나이티드항공(345만7,700원부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운항한다.
- ★ 로브스터 페스티벌(Lobster Festival)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바닷가재와 빵, 주스 등으로 구성된 메인 로브스터 밀(Maine Lobster Meal)은 19달러다. 입장료 10달러(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lobsterfest.com
- ★ 파머스 도터 호텔(Famer's Daughter Hotel)은 컨트리 스타일의 객실을 제공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호텔이다. 청동 테이블, 데님 침구 등의 인테리어는 숙박의 즐거움을 배가한다. 199달러부터, farmersdaughterhotel.com



바닷가재 모자를 쓰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PHOTOGRAPHS : LOBSTERFEST 2012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

THE 49TH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2012.10.5(금) - 10.7(일)

연무대광장 · 화성행궁 광장 · 수원천 등 수원화성 및 화성시 일원

https://shfes.suwon.go.kr

華城, 꿈을 품다



정조대왕 능행차 2012.10.5(금)

메인프로그램	궁중행사재현	특화프로그램	상설공연	화성시 연계행사
· 정조대왕능행차 · 개막연 · 총체공연 · 수원천 꿈길 · 행궁광장 공연	· 작헌의 · 친림 과거시험 · 혜경궁홍씨-진찬연	· 짚신신고 화성걷기 · 용연지몽	· 무예 24기 · 장용영수위의식 · 전통 줄타기	· 용릉제향 · 백수연·호행상

6



SH 컨템퍼러리에 참여해 여러 갤러리와 작가의 전시를 돌아보는 방문객.

PHOTOGRAPHS : SH CONTEMPORARY

Shanghai, China 중국 상하이 예술의 기운 충전!

왜 지금 가야 할까?

상하이에 처음 가봤다면, 상상하던 중국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상하이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세련되었으며, 고상하고, 예술적인 도시다. 물가마저 고상하게 높아서 저렴한 경비를 예상하고 왔다면 큰코다칠 것이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많아 곳곳에 이국적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축물은 1955년 지은 볼셰비키 양식의 건축물인 상하이 전시관(上海展覽中心)이다. 미술관과 컨벤션 센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곳은 아시아

최고의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SH 컨템퍼러리(SH Contemporary)가 열리는 장소기도 하다. SH 컨템퍼러리는 거대한 아시아의 예술 시장이 한 곳에 모이는 축제이자 일반 대중에게도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참신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이 현대미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세계의 톱 갤러리 100여 개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기회.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27만 원부터, kr.koreanair.com)과 아시아나항공(27만 원, flyasia.com)이 인천국제

공항에서 푸둥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 2010년 SH 컨템퍼러리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새로운 잉크라 일컫는 캘리그래피 관련 멀티미디어 작업을 주제로 하는 전시 <뉴 잉크(New Ink)>는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현대미술에 관한 토론과 담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shcontemporary.info

★ 아트 갤러리 단지 M50으로 알려진 모간산 지역에 자리한 네이키드 홈 빌리지(Naked Home Village) 호텔은 친환경 콘셉트의 부티크 호텔이다. 8개의 객실을 갖으며 로지와 방갈로, 스튜디오의 3개 타입으로 나뉜다. 1,500위안부터, nakedretreats.cn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0911 0912 0913 0914 0915 0916

0917 0918 0919 0920 0921 0922 0923

0924 0925 0926 0927 0928 0929 0930

1001

충주 세계무술축제

동해 오징어 축제

전주 세계 소리축제

북천 코스모스 메밀 축제

남해 바다 미술제

추석

Travel & Vacation

9월엔 어디로 갈까?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여행전문채널 티비즈에서 어디든 무엇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의 모든 것 **TVIS HD**

WEB www.tviz.co.kr | TRAVEL & VACATION | TEL 070-8193-1114



노랗게 익어가는 청포도는 세리주의 원료가 되는 페스티벌의 주인공이다.



Jerez de la Frontera, Spain 스페인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 성령이 충만한 스페인의 포도주

왜 지금 가야 할까?
스페인 헤레스에서 열리는 포도 수확 축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리주(sherry wine)다. 청포도인 팔로미노(palomino) 품종의 포도로 만드는 세리주는 화이트 와인으로 은은한 금빛을 띤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이 도시는 매년 9월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특산물 세리주를 기념하기 위해, 성당에서 포도나무를 축복하는 수확 미사를 드린 후 성당 밖으로 나가 포도 밭의 의식을 치른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광란의 축제가 펼쳐진다. 이곳 사람들은 플라멩코나 투우 같은

정열이 넘치는 안달루시아의 즐길거리에 열광한다. 당연히 이만큼은 세리주도 마음껏 들이킨다. 농장의 수확물을 파는 시장에서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별미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세리주를 맛볼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의 와이너리도 일반 대중에게 문을 활짝 여니 세리주 특유의 독특한 숙성 방법을 직접 보고 느껴봐도 좋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드리드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주 3회 운항한다

(206만8,400원부터, kr.koreanair.com). 마드리드에서 헤레스 공항까지는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81유로부터, iberia.com).
★ 피에스타스 데 라 벤디미아(Fiestas de la Vendimia)는 매년 8~9월에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세리주 테이스팅과 와이너리 방문, 말 쇼 등을 즐길 수 있다.
★ 이름처럼 편안한 집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전원풍 숙소 카사 비나 델 아칸타라(Casa Viña de Alcantara)에서 묵어보자. 울창한 숲이 둘러싼 들 한가운데 자그마한 야외 수영장이 자리한다. 160유로, vinadealcantara.com



천천히 산책하듯 옛집과 옛 골목을 돌아보자.



PHOTOGRAPHS : CHO JI-YOUNG

Daegu,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대구 대구의 골목엔 타임머신이 있다

왜 지금 가야 할까?
한껏 초록을 뽐내던 나뭇잎도 다갈색으로 물들어버리는 9월. 폭폭 찌던 더위를 내몰고 완연한 가을이 왔다. 가을은 여행자의 기분을 한껏 감상적으로 만드는 계절. 그 기분을 고이 안고 대구로 떠나보자. 대구의 심장부인 중구, 그 안에서도 종로와 진골목 그리고 남성로 주변 일대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1930~80년대의 모습이 남아 있는 진골목을 따라 골목 투어를 해보자.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1947년에 문을 열어 62년이나 진료를

해온 소아과, 다방 등이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근대 기독교 건축도 빼놓을 수 없는 대구의 볼거리. 1933년에 지은 고딕 양식의 제일교회, 조선시대부터 약재를 거래해온 약전 골목, 한국의 세 번째 성당인 계산성당을 산책하듯 돌아보고, 문을 연 1982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미도다방에서 오리지널 '다방 커피'를 마시며 지친 다리를 쉬어가자.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고속철인 KTX가 서울역과 동대구역을 오가며 약 2시간 걸린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대구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운행하며 3시간 50분 걸린다.

★ 진골목 - 미도다방 - 이상화 시인 고택 - 제일교회 - 약전 골목 - 계산성당 - 3·1 운동길 - 선교사 주택 - 성모당 순서로 대구의 옛모습을 산책해보자.
★ 대구의 근대 건축물을 둘러보거나 골목 투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통 한옥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최근에 문을 열었다. 옛 구암서원 건물을 개보수해 새로 오픈했다. 2인실 3만 원부터, 010 7757 6116.

백트더 퓨처

9



사이판은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여행지다.



PHOTOGRAPHS : CHO JI-YOUNG, SAIPAN WORLD RESORT

Saipan, USA 미국 사이판 판타스틱 워터파크

왜 지금 가야 할까?
푸르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서태평양에 점점이 박힌 북마리아나 제도. 이 중 가장 큰 섬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휴양지 사이판이다. 세계의 스쿠버 다이버가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를 잊지 못해 다시 찾는 곳이며, 원주민의 토착 문화가 문명과 적절히 조화로운 곳이 바로 여기다. 게다가 비행 거리가 4시간 정도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사이판에 도착하면 곧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도처에 자리한 절경의 명소도 돌아보고 싶고, 시원한 바다에서 수상 레포츠도 즐기고 싶다. 또 리조트의 비치 의자에

앉아 유희자적하거나 신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워터파크에서 지칠 때까지 놀고도 싶다. 사이판 월드 리조트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한다. 사이판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리조트라는 타이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곳의 자랑거리는 6종류의 4개 슬라이드를 갖춘 워터파크 웨이브 정글. 누구든 이 정글의 늪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걸 기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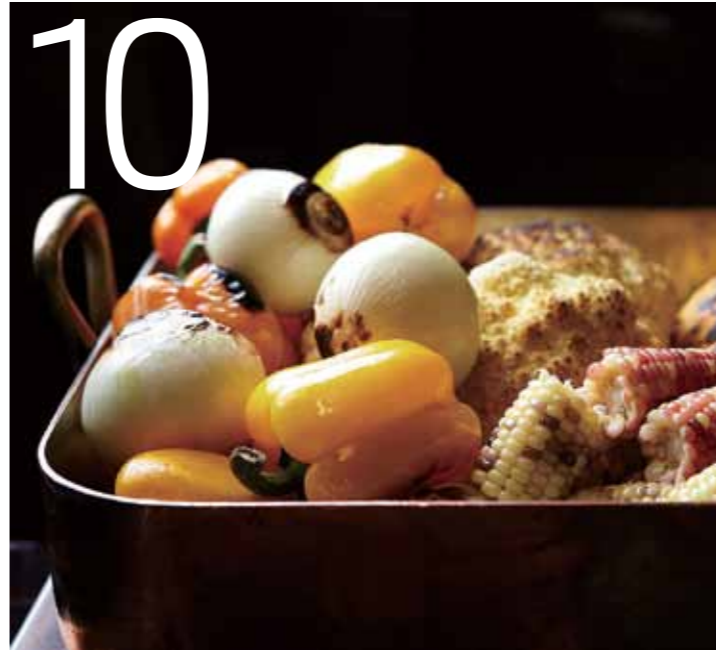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이판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매일 운항한다.

52만2,500원부터, flyasiana.com

- ★ 월드 리조트 내에는 총 7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다. 해변의 일몰과 원주민 쇼를 감상하며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선셋가든, 한식당 명가, 퓨전 음식을 선보이는 타포차우,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 월드 등 이곳에서의 행복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 ★ 리조트에는 헬스클럽과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스파니스, 네일 아트 숍인 토르, 인도 마사지를 제공하는 라메르와 타이 마사지 숍이 있으며, 가족을 위해 키즈 컬리지 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290달러부터, saipanworldresort.com

10



더 파크뷰에서 양질의 재료를 가장 신선하게, 여유로운 공간에서 즐겨보자.



PHOTOGRAPHS : THE SHILLA

Shilla Hotel, Seoul 서울 신라호텔 오늘 아침은 오직 나만을 위해

왜 지금 가야 할까?
특정 호텔에 묵어보기 위해 여행지를 선택하는 시대다. 이제 더 이상 호텔의 조식은 숙박에 으레 포함될 것이 아니라 호텔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또 하나의 요소 중 하나다.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기다린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 이런 흐름에 맞춰 서울신라호텔의 조식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뷰는 맛과 건강, 다양함, 신선함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더 파크뷰에선 일본의 낫토, 홍콩의 즉석 콘지와 딤섬, 영국의 채소 수프 등 전 세계 메뉴를 현지 스타일 그대로 구현한다. 또 '양질'을 결정짓는 재료를

차별화하는 것도 특징. 샐러드 뷔페에는 산삼 배양근, 교나 잎, 더덕 순 등을 포함한 슈퍼푸드와 컬러 푸드가 총출동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즉석에서 제공한다는 것. 파크뷰 조식 뷔페에 마련한 '라이브 스테이션'은 베트남 쌀국수, 전복과 푸아그라를 넣은 오믈렛, 와플, 팬케이크 등을 주문과 동시에 눈앞에서 만들어준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내리거나 시내버스 144, 301, 407, 7212를 타고

장충체육관 앞에 내린다. 정문에서 호텔 로비와 면세점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 더 파크뷰가 있는 서울신라호텔은 영국의 유력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모노클(Monocle)>이 선정한 'Travel Top 50'에서 '조식 미팅하기 좋은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기도 했다. shilla.net
★ 더 파크뷰 조식은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주말은 10시 30분)까지 제공한다. 최소 5인부터 최대 24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프라이빗 룸 5개를 보유하고 있어 미팅이나 회의 장소로도 손색 없다. 예약은 필수. 02 2230 3374.



Is Your Daughter Remarkable?

The world's best boarding school is establishing a unique campu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of Jeju Island, South Korea.

This 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for women's education and your remarkable daughter.



Globally educated in an exceptional campu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03, Branksome Hall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ducating tomorrow's leaders by providing a remarkable education. "We inspire learners to become leaders" is the mantra of Branksome Hall.

Branksome Hall is the pre-eminent girls independent school of North America and a leading IB World School. In 200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ited Branksome Hall to establish a campu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of Jeju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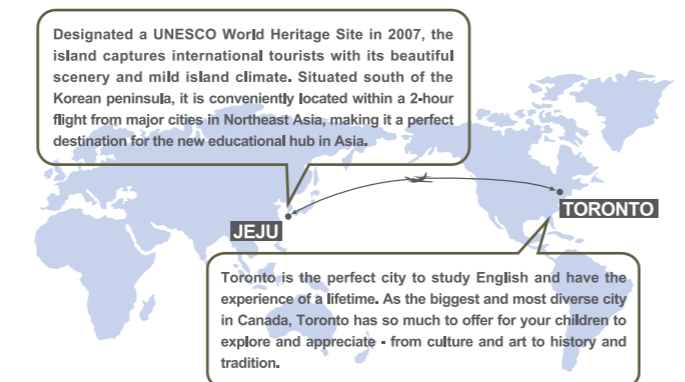
Branksome Hall Asia will open its doors in September 2012 with a truly remarkable campus that features extraordinary facilities for living and learning. The STEM V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nd Visual Arts) Center, Olympic size Ice Arena and Olympic Swimming Center, Golf and Tennis Academies and World Class Performing Arts and Learning facilities are complimented with residential facilities that provide security, care and a home away from home for your remarkable daughter.

최상의 캠퍼스 환경에서 양성되는 글로벌 리더

190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된 북미 최고의 명문 여자 사립학교 중 하나인 브랭섬홀아시아는 차별화,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을 기본 모토로, 전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으로부터 공인된 교육시스템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브랭섬홀아시아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초청되어 설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12년 9월 문을 열게 될 브랭섬홀아시아는 'STEM V 센터'(과학·기술·공학·수학·시각예술 센터),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골프, 테니스 아카데미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 및 학습 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는 학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고의 기숙환경을 함께 제공한다.



Living and Learning in Asia and North America. A world exclusive experience for all Branksome Hall Asia students.

Inclusive in their tuition all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e 'Branksome Hall Asia Exchange Program' to the Toronto city campus. These long stay experiences will allow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best of both North America and Asia. Additional student exchanges and field trips in Arts, Sports and Academics will also be offered across the two campuses.

While the facilities will be cutting-edge, the teaching faculty world's best and the advantages remarkable, Branksome Hall Asia will retain the traditions, philosophy and academic rigor that have established the reputation of Branksome Hall globally.

This remarkable history transforms into a remarkable future at Branksome Hall Asia. Producing women of substance, promoting intellectual rigor, aesthetic appreciation, and a commitment to service typify the Branksome Hall Asia experience.

You are invited to explore the global possibilities for your remarkable daughter at Branksome Hall Asia.

Admissions and scholarships are now open for the 2012/13 academic year. Telephone +82 264568402 / 8408

캠퍼스 간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브랭섬홀아시아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브랭섬홀 제주캠퍼스 내 모든 학생들은 '브랭섬홀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토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 교환 프로그램과 더불어 예술, 스포츠,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양 캠퍼스 간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브랭섬홀아시아의 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아시아, 북미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받게 된다.

최첨단의 교육 시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진으로부터 제공되는 브랭섬홀아시아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과 철학을 존중함과 동시에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와 부합하여 브랭섬홀아시아의 글로벌 명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브랭섬홀아시아의 화려한 역사는 이제 미래를 향한 양질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녀가 지식과 감성,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심까지 두루 갖춘 진정한 글로벌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고 싶다면 브랭섬홀아시아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13학년도 입학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456-8402 / 84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